

제자 기쁨 영화제 제자소 편이

슬픔에 갇힌 용기를 되찾는 이야기!



온두리 할머니의
젊은 시절의 모습.
그러나 대부분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경우
젊은 시절의
사진 한장
남아있질 않다.

할머니는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 전쟁이 일어났고 할머니는 군수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할머니는 그렇게 '정신대'가 되었다. 지옥같은 생활을 벗어나려고 몇번을 죽으려 했던 할머니는 예방이 되었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그렇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50여 년...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세상에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발뺌을 계속했다.

"이렇게 증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가슴 깊이 꼭꼭 묻어두었던 지옥과 분노에 며칠을 앓으셨다는 할머니...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창피한게 문제야 아니고 역사의 증인으로 후세를 가르치게 된 지금이 제일 기뻐."



1. 반두리 할머니
(담장 청소를 하며) "자, 냄새야. 평강도 안 불꺼다, 초졌다. 냄새가 나가... 담 다 내뽐뿌라, 여기 영화 찍는 애들 다 잡아 먹으라고 취 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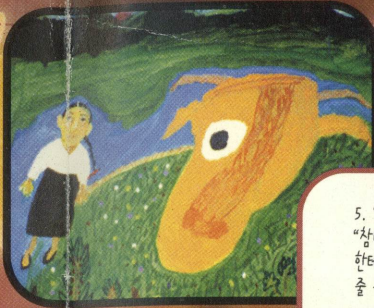
2. 김순덕 할머니
"나는 죽어 다시 태어 난다면 군인이 되고 싶어... 군인 가서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싶어. 배아기고 지밧힌 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3. 강덕경 할머니
"할머니들 따뜻하게 모여 이리 사는데... 일본이 돈 한푼이면 될 줄 알았도 천만에... 우리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울테니까... 우리 할머니들 그리 쉽게 안 죽고 싶어요. 오래 좀 살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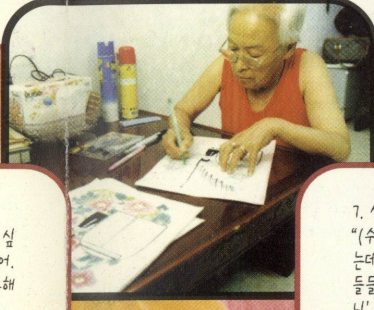
4. 투병중이신 강덕경 할머니
"오물치, 좀 더 묵으라."
"자꾸, 기운이 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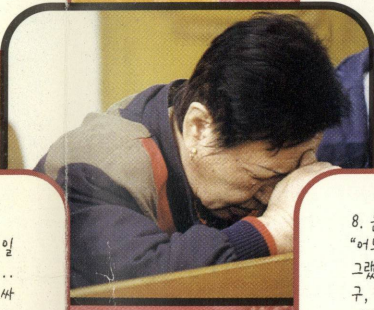
5. '쇼' 그림: 김순덕 할머니
"참다운 생활만 했다는 거지. 내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 안주고, 만 사람도 내힘으로 돌봐줄 수 있고... 그게 출잡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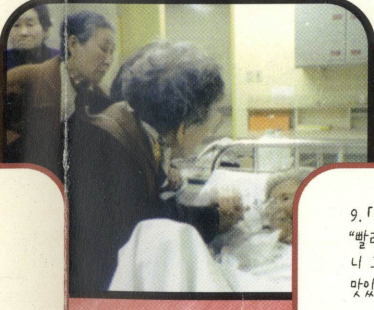
6. 나눔의 집, 나누는 마음
"내년에는 여러가지, 열두가지 더 저울져야. 우리 힘으로 농사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맛있는 거 좀 이래 갈라주고..."



7. 식미자 할머니
"(수 놓고) 이런거 할 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회 사람들 접촉하고 (만 할머니들) 아들이 '엄마, 엄마' 이라고, 손자들이 '할머니' 이러는 소리 들으면 맘이 되게 아퍼."



8. 온두리 할머니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중개기에 가만 누워서 그랬어. 아버지 하느님, 이 생명 거둬 주시라구, 부활시켜 주시라구. 저도요,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 생명 거둬 주시라구... 그렇게 내가 애원을 했어."



9.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병문안
"빨리 낫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림 그리야해, 니 그림 최고 잘 그리는데... 그자? 그자? 맛있는 거 해 주구마."

제작일지 (1993-1997)

낮은 목소리 1

1994년 4월 「나눔의 집」의 이창달 할머니들 여섯분 외엔 이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촬영을 할 것인가. 이창달을 나들 것인가의 기로에서 결국 우리는 후자를 택한다. 버리면 얻는다고 했던가. 우리를 대하는 할머니들의 냉랭했던 태도에 일대전환이 이루어졌다.

1994년 11월 할머니의裸身을 과연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굴곡진 역사의 여자와 해방된 여성의 몸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으로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감해있는 우리들 앞에 홍경림 할머니는 선뜻 자신의 몸을 드러내주었다. 언제나 그랬지만 할머니들이 더 용감하다.

1995년 4월 29일 대학로 복판에 「낮은 목소리」 간판이 걸린다. 모두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이라 한다. 정작 신이난 건 할머니들이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이 건네는 악수와 눈인사에 재미를 느끼신 할머니들, 상영기간 내내 출근도장을 찍으신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맛보신 것일까?

낮은 목소리 2

1995년 12월 강덕경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해암말기라는 급작스런 소식에 정신없이 달려간 우리들에게 할머니는 자신이 죽을때까지를 모두 영화에 담으라 하신다. 갑자기 우리는 혼란스러워했다.

1996년 2월 「나눔의 집」 촬영에 제동이 걸렸다. 「낮은 목소리」의 경험으로 촬영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신 할머니들이 연기, 연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낮은 목소리2」를 온전히 당신들의 영화로 만들고 싶은 바람에서일까?

1996년 5월 강덕경 할머니 병실생활 48일째. 보임 병실지기 16일째. 금방이라도 걸어나가실 듯 하다가도 저덕만 되면 헛소리에 기력이 뚝 떨어지신다. 지금으론 할머니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다. 지치지 말자!

1996년 8월 박두리 할머니가 오늘 밤도 어김없이 우리 숙소를 찾으셨다. 기다렸다는 듯이 똑딱 술상이 차려지고 늘 똑같은 레파토라라도 들을 때마다 신선한 할머니의 노래가 시작된다. 삶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삶이 되는 순간이다.

1996년 11월 할머니들의 증언을 촬영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힘든 작업이다. 우리들보다 할머니들이 더욱 그럴것이다. 몇시간이 흘렀을까.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는 감독님의 얼굴도 굳어 있었고 김복동 할머니의 눈자위는 새빨개져 있었다.

1997년 3월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으신 故 강덕경 할머니의 빈방에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모여앉았다. 할머니들은 어떤 소원들을 갖고 계신지 물었더니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금의 할머니들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본다.